

대형 폐기물 회수 및 처리실태

한 창 일

내무부 공기업과

1. 머리말

지방자치단체가 대형폐기물의 회수처리를 문제삼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종전에는 대형폐기물의 발생량도 적었을 뿐만아니라 비록 발생되어도 고철류는 분해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고 목재류는 연료로 자체 사용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대형폐기물의 처리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며 비록 발생이 되어도 자치단체가 보유한 매립지였다 매립처분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엄청난 량의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는 반면 인건비의 상승으로 고물상이 점차 사라지고 LPG, 석유 등 고급연료의 등장으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무한정 늘어나는 대형유폐기물을 그대로 수거·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매립지에 관한 인근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매립지 부족난이 심각하게 대두되자 대형폐기물을 그대로 매립처리하기에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는 대형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지 않는가 하면 처리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는등 소극적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하천변, 야산,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도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회수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자원으로 회수하는 방법까지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 주민이 신고하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수거하는 극히 소극적인 방법이고 또 처리하는 방법도 자원을 회수하는 목적 보다는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 즉 공구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분해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속 늘어만 가는 대형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최대한 자원화하는 시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와있다.

내무부 역시 대형폐기물의 회수처리에 관한 풍부한 자료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본문에서는 실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실상과 자치단체에서 강구하고 있는 발전방안을 요약 정리한데 불과하다.

2. 대형폐기물의 회수실태

2.1. 대형폐기물의 회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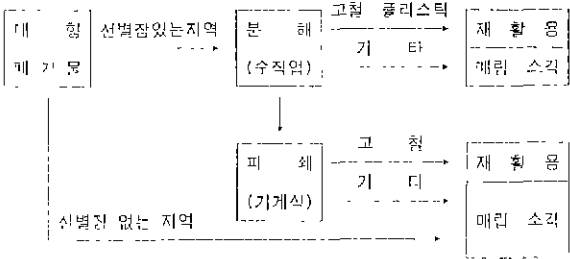
종전까지 대형폐기물은 그대로 매립처리되었으나 최근 매립지 부족난이 심각해 지면서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 또는 쓰레기 적환장에서 간단한 도구에 의해 분해후 철, 동,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재활용하고 기타 판매하기 곤란한 프라스틱, 우레탄, 스티로폼 등은 매립 또는 소각처리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파쇄기가 있어 중요한 재활용품은 제거후 파쇄하여 매립처리하고 있는데 이때 파쇄하는 목적은 단순히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며 재활용을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선별창고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고 파쇄된 폐기물을 현지에서 소각처리한후 고철은 별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은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해 또는 파쇄없이 그대로 매립처리하고 있으며 8개 시군구에서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압축차량에 의해 압축수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용도 종전에는 별도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대형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수거운반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 260개 시군구중 69개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수집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191개 시군구에서는 아직도 무료로 수거하고 있는데 이중 121개 시군구에서는 일반쓰레기 수거시 일반쓰레기와 동시에 수거하고 나머지 70개 시군구는 주민신고에 의해 별도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다.

대형폐기물 회수처리 과정

기...점 선별장...정환장 공장...매립장



대형폐기물 수거방법

계	무료처리			유료처리 (주민신고)
	소계	일반수거	주민신고	
260시군구	191	121	70	69

유료처리는 대부분 대형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서울 22구, 부산 12구, 대구 7구, 인천 6구, 광주 4구 등 전역에서 시행되고 기타 대전 1구, 경기 1시, 충북 5시군, 경북 9시군, 경남 1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처리수수료는 시군구의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되고 있는데 폐기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다. '94.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와 일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지역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단위: 원)

품목	서울	부산	광주
냉장고	4,000~8,000	5,000~9,000	5,000
세탁기	3,000	5,000~9,000	3,000~5,000
T V	3,000~5,000	800~5,000	3,000
장농	10,000~15,000	5,000~9,000	5,000
응집세트	2,000~5,000	5,000~9,000	5,000
침대	15,000~23,000	5,000~9,000	5,000

2.2. 대형폐기물의 회수량

자치단체에서 회수처리하는 대형폐기물의 양은 다음 도표와 같다. 사실 자치단체에서 분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이 어느정도 정확성을 갖고 있지만 단순히 매립하는 지역에서는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다. 때문에 매립지에서 장기간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의 경험에 의해 추정된 수치로서 실제 처리한 량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매우 근사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품목별 회수량, '93년도 기준

(단위: 개)

품목	회수량	품목	회수량
계	1,053,310	장농	88,303
침대	19,741	냉장고	201,650
응집세트	83,379	의자	102,072
세탁기	115,501	식탁	31,242
장식장	44,005	T V	115,512
싱크대	33,389	화장대	30,772
선풍기	84,557	책상	103,187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65천개로서 전체회수량의 44%를 차지하며 경기도가 109천개로서 전체 회수량의 10%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회수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회수량, '93년도 기준

시도	회수량	시도	회수량
서울	465,186	대전	91,005
전북	25,133	부산	24,440
경기	109,080	전남	33,086
대구	21,947	강원	21,644
경북	35,642	인천	24,110
충북	32,902	경남	51,554
광주	54,796	충남	38,504
제주	24,281		

회수량중 유료처리지역에서 회수한 량은 전체회수량의 14.7%에 해당되는 155천점이며 이중 주민들이 신고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수거한 량은 3.4%에 해당되는 53천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불법투기된 것을 수거한 량이다.

유료처리지역 회수량, '93년도

총회수량	무료처리지역 회수량	유료처리지역 회수량		
		계	주민신고	불법투기
1,053,310점 (100%)	898,260 (85.3%)	155,050 (14.7%)	53,270	101,780

자치단체가 회수한 대형폐기물이 전체 회수한 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비교가능한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94.4월에 조사한

주요품목에 한정되며 기타 품목은 기존의 통계가 없어 불가능하였다.

자치단체의 회수비용 '93년도

(단위 : 톤)

구 분	냉 장 고	세 탁 기	T V
전체회수량	33,677	16,354	4,524
자치단체회수량 (비 중)	13,309 (40%)	6,006 (38%)	2,541 (56%)

※ 대상 평균중량 : 냉장고 66 kg, 세탁기 52 kg, TV 22 kg

현재 유료처리지역이 확대되고 자치단체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계속 확충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회수하는 량은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3. 대형폐기물 처리실태

3.1. 대형폐기물 처리내용

'93년중 자치단체가 회수한 주요 대형폐기물의 수량은 총 1,053천점으로써 이중 80.7%에 해당되는 850천점은 그대로 매립되었으며 2.8%에 해당되는 30천점은 수리하여 다시 사용되었고 16.5%에 해당되는 174천점은 분해하여 재활용 되고 있다.

품목별 재활용품을 보면 철재, 플라스틱등 고가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체가 용이한 품목의 재활용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냉장고가 29.9%, 선풍기가25.9%, 세탁기가 21.8%, 의자가 19.6%, TV가 19.2%등이며, 목재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분해가 용이하지 않은 품목의 재활용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 재활용율

(단위 : %)

품 목	재활용율	품 목	재활용율
계	19.3	장 농	10.1
침 대	11.6	냉 장 고	29.9
응 집 셋 트	13.4	의 자	19.6
세 탁 기	21.8	식 탁	11.5
장 식 장	14.2	T V	19.2
싱 크 대	14.6	화 장 대	16.6
선 풍 기	25.9	책 상	11.6

재활용 방법은 대부분 분해에 의하여 성분별로 선별하여 재생하는 방법이고 일부 대형폐기물만은 수리·수선되어 재사용되고 있다

재활용 방법

구 분	계	수리·수선	분해
수 량	203,616점	29,745점	173,871점
비 율	100%	14.6%	85.4%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단위 : 개)

구 분	계	매 립	재 활 용		
			계	수 리	분 해
계	1,053,310	849,694	203,616	29,745	173,871
냉 장 고	201,650	141,434	60,216	4,959	55,257
세 탁 기	115,501	90,363	25,138	2,870	22,268
T V	115,512	93,309	22,203	4,946	17,257
선 풍 기	84,557	62,666	21,891	3,528	18,363
장 농	88,303	79,405	8,898	1,434	7,464
응 집 셋 트	83,379	72,184	11,195	1,674	9,521
식 탁	31,242	27,642	3,600	1,136	2,464
싱 크 대	33,389	28,516	4,873	766	4,107
책 상	103,187	91,268	11,919	2,660	9,259
침 대	19,741	17,456	2,285	497	1,788
의 자	102,072	82,054	20,018	3,911	16,107
장 식 장	44,005	37,740	6,265	1,023	5,242
화 장 대	30,772	25,657	5,115	341	4,774

3.2. 대형폐기물 재활용방법

3.2.1. 수리·수선후 재사용

자치단체가 회수한 대형폐기물중 고장 또는 노후정도가 낮은 폐기물은 간단한 수리·수선으로 재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쓰레기 집하장 또는 매립장으로 운반된 폐기물을 환경미화원이 재사용 가능한 품목만 별도로 분리하여 민간 수리센터로 공급해 주거나 시군구단위에 설치된 재활용센터로 공급하여 수리·수선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수리·수선하여 재사용 가능한 품목을 가정에서 부터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시군구단위의 선별창고에서 수리·수선하는 방법이 있다.

재활용센터는 의류, 완구류, 신발류, 도서류등의 중고품을 상시교환하고 중고가가와 가전제품을 수리·수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92년도에 내무부가 각 시군구별로 설치하도록 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는데 '94. 6말 현재 114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규모는 대체로 50평정도이다.

재활용센터는 민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 민간자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건물제공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품을 수집하여 전달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고가구나 가전제품을 수리·수선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 확보가 어려워 수리·수선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94년에 들어서는 재활용센터의 설치가 늘어나고 수리·수선 기능도 대폭 보강되면서 수리·수선기능이 활발해 지고 있다.

3.2.2. 분해후 재활용

수리·수선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은 분해하여 재활용하게 되는데 현재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첫째 방법은 단순히 분해하여 재활용품만 선별하는 방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대형폐기물을 분해하는 장소는 선별창고 또는 쓰레기 적환장등인데 분해방법은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 즉 수작업에 의하고 있다. 분해도구는 산소절단기, 프래온가스회수기, 철제절단기, 기계톱, 파이프렌치, 다목적공구 등이다. 분해작업은 대부분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수작업에 의해 분해하고 있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분해후 재활용품은 선별하고 남은 폐기물은 다시 파쇄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방법이다. 수작업에 의해 분해하는 경우 모든 재활용품을 다

분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1차로 수작업에 의해 분해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고 나머지는 대형파쇄기에 의해 절단시킨 후 수작업으로 분해하지 못한 재활용품까지 재선별하는 방법이다.

대형파쇄기에 의해 절단된 폐기물중 자원으로써 회수가 가능한 재활용품은 대부분 고철류인데 소형소각로에 의해 소각후 선별된다.

이렇게하여 선별된 재활용품은 주로 철,구리,스텐레스,플라스틱등이다.중간수집상이나 재생공장에 판매한 판매가격은 분해 또는 파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는 절대 부족하지만 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운반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립자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고 자원을 절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품목별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주요 품목의 판매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품목별 재활용품 판매가격 (단위: 원)

품 목	부 산	대 구	강 원	충 북
냉 장 고	500~1,200	2,000~4,000	1,000~2,000	500~15,000
세 탁 기	100~600	500~1,000	300~500	200~3,000
T V	100~200	200~300	20~30	300~1,000
선 풍 기	100~200	200~300	100~200	200~500

판매가격이 지역별로 상이한 이유는 대형폐기물을 분해 또는 압축하는 방법이 다르며 분해하여 분리한 재활용품을 전량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판매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2.3. 파쇄시설 운영실태

대형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이다.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는 파쇄시설이외에도 자동선별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파쇄기 정도이며 선별기는 예산도 부족하고 설치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설치한 사례가 없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파쇄기 유형

설치시군구 (예시)	제조회사
인천시 남구(50Hp), 인천시 서구(75Hp), 구리시(75Hp)	조일기연
대전시 서구(60Hp), 의정부시(60Hp), 고양시(60Hp)	진 도

성남시(60Hp), 안양시(60Hp), 안산시(60Hp), 광명시(60Hp), 수원시(60Hp), 부천시(60Hp)	다산테크
--	------

이밖에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94.9월 난지도에 대형파쇄기를 설치하였는데 처리능력은 1일 8시간 기준 64톤정도이며 설치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943백만원이다. 이 시설은 일본 리하마 철공소에서 제작하였으며 앞으로 1일 160톤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를 95년말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국내에서 제작한 파쇄기의 문제점은 처리능력이 적고 절단장치 즉 칼날 부분의 강도가 미흡한 데에 있는데 최근 많이 보완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칼날의 마모 또는 고장정도는 투입하는 대형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파쇄기 간의 성능비교는 곤란하지만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쇄기의 성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 남구의 경우 '94.3.1부터 파쇄기를 작동하고 있는데 '94.8말까지 냉장고 837대, 세탁기 395대, 가구류 1,050개 등 총 3,475점으로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였고 파쇄전에 냉장고의 프레온가스통, 뒷면철판등 해체가 용이한 철제부분은 제거하고 파쇄시키고 있는데 현재 까지 칼날부분의 고장은 한번도 없었고 다만 오일파이프가 4회정도 고장나는 등 경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93.12.1부터 작동시키고 있는데 '94. 4까지는 칼날부분의 균형 불일치로 10여회 이상 고장이 났으나 현재는 이상이 없다. 의정부시에서 그간 파쇄한 대형폐기물은 8,211개나 되는데 냉장고가 1,400개, 세탁기가 751개, 가구류가 3,570개 등이 있다.

안산시의 경우는 '94.2.28부터 작동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냉장고 1,922개, 세탁기 1,522개, 가구류 15,881개 등 25,700개의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였는데 모터부분의 고장이 1회 있었다.

이와 같이 파쇄기의 기술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규모를 대형화하고 칼날부분을 보다 보완 발전시켜야 될 줄로 판단된다.

4. 발전방안

4.1 회수체계 확립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대형폐기물의 회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형폐기물이 일단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매립지 또는 소각장으로 운반되거나 압축차량에 의해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압축처리되면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별도로 선별된다고 하여도 대형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대형폐기물은 발생단계에서 부터 별도로 분리하여 수거하는 것이 좋다. 현재 주민신고에 의해 별도로 수거하는 지역이 139개시군구이고 나머지 121개시군구는 아직 일반쓰레기와 동시에 수거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이 주민신고에 의한 수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신고에 의한 수거시에도 유료로 수거하느냐 즉 별도로 수수료를 주민들로 부터 받고 수거하느냐 아니면 무료로 수거하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것이나 유료수거는 불법투기의 문제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무료수거시에도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시군구에서도 제때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기의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확행되어야 하며 시군구에서도 운반차량은 충분히 확충하여 발생된 대형폐기물이 시군구에 의해 전량수거되도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대형폐기물을 자치단체가 회수하는 방법 이외에도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서 계통별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즉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유통업체를 통하여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생산업체가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예치금의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의욕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치금 부담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요금을 현행보다 인상시켜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예치금 지급대상이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환경처 예규 제105호)을 자치단체, 민간처리업체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4.2 시설장비 확충

수집된 재활용품을 자원화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장비가 확충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소규모 파쇄기에 불과하며 선별기는 아직 설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파쇄기와 선별기가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파쇄기는 파쇄용량이 크고 절단능력이 높은 제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파쇄된 폐기물을 철, 비철,

알루미늄등으로 자동 분리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가 개발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파쇄기를 설치하고 대형폐기물을 대량보관, 압축할 수 있는 창고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각 시군구에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의 경우 규모가 적어 대형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 설치되는 선별창고는 충분히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부문에서 선별창고를 설치할 경우 부지확보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지만 대규모의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대형 폐기물 파쇄하여 회수된 재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하여도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의 대형 선별창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4.3. 민간부문 역할증대

지금까지 주로 자치단체가 직접 회수처리하는 System에 관해 소개하였지만 앞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System이 개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처리하기 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회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일부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여 별개의 법인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형폐기물의 적정회수 처리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대형폐기물의 회수와 처리장소 및 처리비

용의 일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민간대행업체가 파쇄 재활용처리하는 제3색타방식 즉 민간공동출자법인에 의한 처리방식의 도입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5. 맺는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회수와 처리 실태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사실 대형폐기물의 자원화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한 부문이었기 때문에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다.

대형폐기물을 자원으로 다시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자원을 사랑하는 국민의식의 확립이 선행되어야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자원을 절약하는 국민정서 즉, 흠결이 다소 있는 물건도 아껴서 쓸수 있는 심성과 물건을 대물림하여 쓰는 전통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내무부가 대형폐기물의 회수체계와 처리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미흡하나마 자원화하는데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게 된 것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시대적인 책무라고 판단된다.

대형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회수체계의 확립과 시설장비의 확충 그리고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가 중요한 요체이나 이에 대하여 내무부는 사단법인 한국자원리사이클링 학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위에서 제시한 각종 통계는 내무부가 '94. 8 중에 파악한 행정자료임.